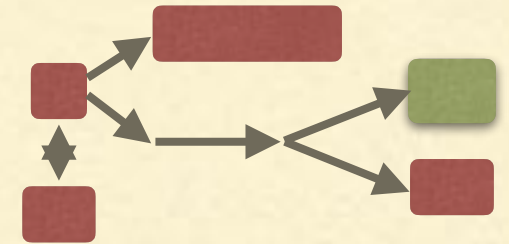


시적 ‘주체’의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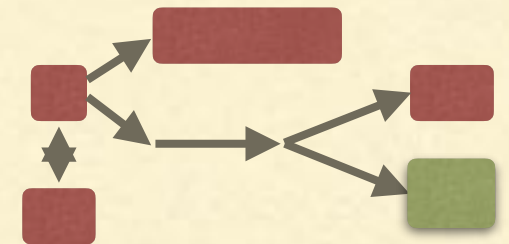
페르소나, 화자



- 텍스트로부터 시인을 퇴출
- 페르소나(persona) : 정신분석학 ego에서 기원
‘타자’와의 관련 하에서 작동하는 ‘나’.
웜셋 & 비어즐리 : 저자의 시적 권위 박탈 ➡ 페르소나로 전환
- 화자 : 영미 신비평
실존 시인과 차별화되는, ‘말한다’는 기능적 존재
‘화자’ – context(시인, 독자) = 언어적 집적물
- 페르소나, 화자 공통점 : ‘타자’를 요구한다

시적 '주체'의 구분

말하는 주체



- 정신분석학, 후기 구조주의적 개념 적용
- 텍스트가 놓인 담론 ➡ 다른 담론과 상호관계 ➡ 의미 창출
- 시인: '과정 중의 주체' (시인의 경험, 역사적 상황 반영)
+ 독자: '발화 행위의 주체'
= '말하는 주체' 발현(일회성, 휘발성, 통일성, 일관성)
- 더이상 시인은 시를 일괄, 통제하는 유일자가 아님. 독자에 무게.